

<서평>

A Guide to Bible Translation: People, Languages, and Topics (Swindon: United Bible Societies, 2019)

김세희*

1. 들어가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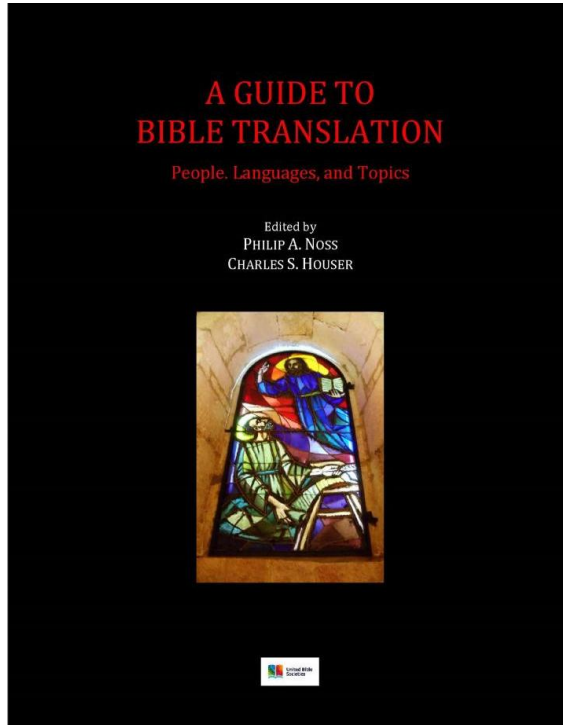
2019년에 출판된 *A Guide to Bible Translation: People, Languages, and Topics*¹⁾는 성서를 번역함에 있어서 함께해 온 사람들, 번역된 언어들, 그리고 폭넓은 주제들을 다룬 백과사전적 개념의 책이다. 이 책은 그 크기도 크고 두께도 두꺼운 편으로, 가로 17.7cm, 세로 25.3cm, 그리고 두께가 5.2cm 크기에 971쪽에 달한다.

이 책은 그 제목에 적혀 있는 그대로 성서 번역에 있어서 가이드가 되는 ‘사람들(People)’, ‘언어들(Languages)’, 그리고 ‘주제들(Topics)’을 세 장으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사람들’은 3-64쪽에 걸쳐 대략 62쪽, ‘언어들’은 65-274쪽에 걸쳐 대략 210쪽, 그리고 ‘주제들’은 가장 커다란 장으로 275-896쪽에 걸쳐 대략 622쪽에 기술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이 책의 저자와 구성(2.), 이 책에 들어 있는 항목과 서술 방식(3.), 이 책에 들어 있는 표/그

* Boston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강사, 대한성서공회 성경번역연구소 연구원. saything@gmail.com.

1) History of Bible Translation의 기존 시리즈는 P. A. Noss, ed., *A History of Bible Translation* (Rome: Edizioni de storia e letteratura;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2011); J. D. K. Ekem, *Early Scriptures of the Gold Coast (Ghana): The Historical, Linguistic, and Theological Settings of Gã, Twi, Mfantse, and Ewe Bibles* (Rome: Edizioni di Storia e Letteratura; United Kingdom: St. Jerome Publishing, 2011); K. J. Thomas with a contribution by Ali-Asghar Aghbar, *A Restless Search: A History of Persian Translations of the Bible* (Philadelphia: Nida Institute for Biblical Scholarship, American Bible Society, 2015)가 있다.

림/사진 자료(4.), 이 책에서 도움이 되는 점(5.), 이 책에서 주목할 만한 대한
민국 자료(6.), 이 책의 아쉬운 점(7.), 나가는 말(8.)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이 책의 저자와 구성

이 책은 서두에 그 출판 과정과 기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10여 년에 걸쳐 완성된 *A Guide to Bible Translation: People, Languages, and Topics*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 [UBS])와 하계 언어학 연구소(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SIL]), 그리고 유진 A. 나이다(E. A. Nida)의 이름으로 세워진 나이다 연구소(Nida Institute)의 많은 사람들이 계획하고 썼다. 편집자는 *A History of Bible Translation* 시리즈를 계속 담당해 온 UBS의 필립 A. 노스(P. A. Noss)와 미국성서공회(American Bible Society [ABS])에서 편집자로 일했던 찰스 S. 하우스저(C. S. Houser)이다.

책의 맨 앞에는 이 책이 출판되기 직전 세상을 떠난 폴 엘링워스(Rev. Dr. P. Ellingworth, 1931-2018)에 대한 헌정글이 적혀 있다. 그는 *A History of Bible Translation* 시리즈에 많은 기여를 했고, 이 책에서도 역시 해박한 정보와 지식으로 많은 글에 저자로 참여했다.

두 명의 편집자 중 한 명인 노스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책에서 최고의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 각 장의 서론을 모두 노스가 서술하였으며, 세 장 모두에서 여러 글의 저자로 참여하였다. 이 책은 25명의 고문, 183명의 저자, 그리고 5명의 번역자가 함께하였다. 그들은 세계 여러 나라 출신이며, 각국의 성서 번역의 역사와 각종 중요한 개념들을 능통하게 알고 있는, 학자, 목사, 그리고 각국의 성서공회 실무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의 구성은 처음에 책의 역사, 헌정글, 일러스트 순서, 감사의 말, 약어표 등의 책에 대한 전반적 정보가 등장하고, 그다음 본문에는 *A Guide to Bible Translation*의 세 장, 사람들(People), 언어들(Languages), 주제들(Topics)의 본문이 900쪽 가까이 기술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편집자 정보, 참고문헌, 언어 색인, 주제별 색인 등 책을 구성할 때 참고했거나 책의 항목을 찾기 쉽게 하기 위한 자료가 뒤따른다.

3. 이 책에 들어 있는 항목과 서술 방식

3.1. 사람들(People)

노스는 첫 번째 장에서 ‘사람들’을 4쪽에 걸쳐 간단히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들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성서 번역의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인물들로, 성서 번역을 직접 하거나 혹은 번역에 중요한 사상적 기여를 하거나, 혹은 그 보급에 커다란 기여를 한 인물들이다. 153명의 인물은 다음과 같다²⁾:

알 자히즈(al-Jahiz, 776-869); 쿠르트 알란드(Kurt Aland, 1915-94); 요크의 알퀸(Alcuin of York, ca. 740-804); 알드레드(Aldred, ca. 950); 알프레드 대왕(Alfred the Great, 849-99); 주앙 페헤이라 드 알메이다(João Ferreira de Almeida, 1628-91); 루이스 알론소 쇠켈(Luis Alonso Schökel,

2) P. A. Noss and C. S. Houser, eds., *A Guide to Bible Translation: People, Languages, and Topics* (Swindon: United Bible Societies, 2019), 6-64.

1920-98); 시노페의 아퀼라(Aquila of Sinope, c. 2c CE); 사모트라케의 아리스타르코스(Aristarchus of Samothrace, ca. 217-145 BCE); 아리스테아스(Aristeas); 매튜 아놀드(Matthew Arnold, 1822-1888); 장 아스트뤽(Jean Astruc, 1684-1766); 아타우알파(Atahualpa, ca. 1502-33); 캔터베리의 어거스틴(Agustine of Canterbury, d. ca. 609);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 of Hippo, 354-430); 존 밋첼러(John Batchelor, 1854-1944); 알프레드 체스터 비티 경(Sir Alfred Chester Beatty, 1875-1968); 비드(Bede, ca. 673-735); 존 비크만(John Beekman, 1918-80); 조아생 뒤 벨레(Joachim du Bellay, ca. 1522-60); 테오도르 드 베즈(Théodore de Bèze, 1519-1605); 매튜 블랙(Matthew Black, 1908-94); 솔로몬 블룸가든(Solomon Bloomgarden, 1872-1927); 보이치에흐 보보스키(Wojciech Bobowski, ca. 1610-ca. 1667); 조반니 보카치오(Giovanni Boccaccio, 1313-75); 마르틴 부버(Martin Buber, 1878-1965); 캐드먼(Caedmon, ca. 657-680 CE); 존 C. 켈로우(John C. Callow, 1933-); 조지 캠벨(George Campbell, 1719-96); 윌리엄 캐리(William Carey, 1761-1834); 세바스찬 카스텔리오(Sebastian Castellio, 1515-63); 존 커니슨 캣포드(John Cunnison Catford, 1917-2009); 체올프리스(Ceolfriht, 642-716); 샤를마뉴 대제(Charlemagne, ca. 742-814); 나단 앙드레 쇼라키(Nathan André Chouraqui, 1917-2007); 요한 크리스탈러(Johann Christaller, 1837-95);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106-43 BCE); 콘스탄티누스 대제(Constantine the Great, ca. 280-337); 마일스 커버데일(Miles Coverdale, 1488-1569); 사무엘 아자이 크라우더(Samuel Ajayi Crowther, ca. 1807-91); 키릴로스(Cyril, ca. 826-869); 메토디오스(Methodius, ca. 815-885); 다마스 I세(Damasus I, ca. 304-384); 단테 알리기에리(Dante Alighieri, 1265-1321); 존 넬슨 다비(John Nelson Darby, 1800-82); 팔레룸의 데메트리우스(Demetrius of Phalerum, ca. 354-ca. 283 BCE);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1930-2004);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Diocletian, ca. 245-305 CE); 조반니 디오다티(Giovanni Diodati, 1576-1649); 에티엔 돌레(Étienne Dolet, 1509-46); 존 드라이든(John Dryden, 1631-1700); 스테파누스 야코부스 뒤 투아(Rev. Stefanus Jacobus Du Toit, 1847-1911); 존 엘리엇(John Eliot, 1604-90); 데시테리우스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ca. 1466-1536); 로베르 에띠엔느(Robert Estienne, 1503-59);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Eusebius of Caesarea, ca. 263-339); 제임스 에반스(James Evans, 1801-46); 윌리엄 풀크(William Fulke, 1538-89); 빌헬름 게제니우스(Wilhelm Gesenius, 1786-1842); 윌리엄 그린필드(William Greenfield, 1799-1831); 계몽자 그레고리(Gregory the Illuminator, ca. 240-332); 허버트 P. 그라이스(Herbert P. Grice, 1913-88); 요하네스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 1400-68); 예후다 벤 다비드 하유즈(Judah

ben David Hayyuj, ca. 940-1010); 헤로도토스(Herodotus, 484-425 BCE); 호라티우스(Horace, 65-8 BCE); 펜튼 존 안토니 호르트(Fenton John Anthony Hort, 1828-92); 이븐 자나(Ibn Janāh, ca. 990-1050); 제롬(Jerome, ca. 340-420 CE); 세빌 존 비숍(Bishop of Seville John); 메리 존스(Mary Jones, 1784-1864); 클라란스 조르단(Clarence Jordan, 1912-69); 애도니람 저드슨(Adoniram Judson, 1788-1850); 순교자 유스티누스(Justin Martyr, ca. 100-165 CE); 유스티아누스 1세(Justinian I the Great, ca. 483-565 CE); 부크 스테파노비치 카라지치(Vuk Stefanović Karadžić, 1787-1864); 한나 킬람(Hannah Kilham, 1744-1832); 로널드 아르부트노트 녹스(Ronald Arbuthnot Knox, 1888-1957); 지기스문트 빌헬름 켈(Sigismund Wilhelm Koelle, 1823-1902); 요한 루트비히 크라프(Johann Ludwig Krapf, 1810-81); 쿠마라지바(Kumārājīva, 343/344-413 CE); 샤를 라비주리(Charles Lavigerie, 1825-92); 이수정(Su-Jung Lee, 1842-86); 모리스 빈하르트(Maurice Leenhardt, 1878-1954); 이삭 리저(Isaac Leeser, 1806-1868); 자크 르페브르 데타플(Jacques Lefèvre d'Étaples, ca. 1455-1536); 카를 리처드 렉시우스(Carl Richard Lepsius, 1810-84); 루 첸청(Lu Chen-Chung, 1898-1988); 안티오크의 성 루치아노(Lucian of Antioch, 240-312 CE); 사모사타의 루키아노스(Lucian of Samosata, ca. 120-180 CE);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 클레앙 마로(Clément Marot, ca. 1496-1544); 조슈아 마쉬맨(Joshua Marshman, 1768-1837); 안토니오 마르티니(Antonio Martini, 1720-1809); 카를로 마리아 마르티니(Carlo Maria Martini SJ, 1927-2012); 마소라학과(Masorettes); 토마스 매튜(Thomas Matthew, 1500-55); 모세 멘델스존(Moses Mendelssohn, 1729-86); 요한 멘텔(Johann Mentel, 1410-78); 메스로프 마슈토츠(Mesrop Mashtots, 360-440); 브루스 M. 메츠거(Bruce M. Metzger, 1914-2007); 로버트 모펫(Robert Moffat, 1795-1883); 제임스 모펫(James Moffatt, 1870-1944); 베니토 아리아스 몬타노(Benito Arias Montano, 1527-98); 헬렌 바렛 몽고메리(Helen Barrett Montgomery, 1861-1934);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rison, 1782-1834); 유진 A. 나이다(Eugene A. Nida, 1914-2011); 아홉 명의 성인(The Nine Saints); 존 노튼(John Norton, 1770-ca. 1831); 헨리 노트(Henry Nott, 1774-1844); 줄리어스 니에레레(Julius Nyerere, 1922-99); 피에르 로베르 올리베탕(Pierre Robert Olivétan, 1506-38); 오리겐(Origen, ca. 185-254 CE); 산투스 파그니누스(Xanthus Pagninus, 1470-1541); 파니니(Pānini); 텔라의 바울(Paul of Tella, ca. late 6 to early 7 c. CE); 이삭 리브 페레츠(Isaac Leib Peretz, 1852-1915); 필로(Philo Judaeus, ca. 13 BCE-45/50 CE); 케네스 L. 파이크(Kenneth L. Pike, 1912-2000); 사무엘 폴라드(Samuel Pollard, 1864-1915); 포마르 2세(Pomare II, 1774-1821); 토머스 스탬퍼드 래플스

경(Sir Thomas Stamford Raffles, 1781-1826); 실라스 테르티우스 랜드(Silas Tertius Rand, 1810-89); 카시오도로 데 레이나(Casiodoro de Reina, 1520-94);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1552-1610); 프란츠 로젠바이크(Franz Rosenzweig, 1886-1929); 존 로스(John Ross, 1842-1915); 알버트 코넬리우스 루일(Albert Cornelius Ruyl, 17-c.); 사아디아 벤 요셉(Sa'adia ben Joseph, 882/892-942 CE); 베르나르디노 데 사아군(Bernardino de Sahagún, ca. 1499-1590); 알프레드 세이커(Alfred Saker, 1814-80);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1857-1913); 프리드리히 슈라이어마허(Friedrich Schleiermacher, 1768-1834); 프랜시스 지버트(Frances Siewert, 1881-1967); 벤 시라(Sirach or Jesus ben Sira, fl. ca. 180 BCE); (Edward Steere, 1828-82); 조지 스타이너(George Steiner, 1929-); 심마쿠스 벤 요셉(Symmachus ben Joseph); 타이탄(Tatian, ca. 120-173 CE); 테오도티온(Theodotion); 찰스 톰슨(Charles Thomson, 1729-1824); 제임스 톰슨(James Thomson, 1788-1854); W. 카메론 타운센드(W. Cameron Townsend, 1896-1982); 프리모쥬 투루바르(Primož Trubar, 1508-86); 윌리엄 틴들(William Tyndale, ca. 1494-1536); 알렉산더 프레이저 타이틀러(Alexander Fraser Tytler, 1747-1813); 아브라함 우스크(Abraham Usque); 윌리엄 워드(William Ward, 1769-1823);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91); 브룩 포스 웨스트코트(Brooke Foss Westcott, 1825-1901); 울피아스(Wulfila, ca. 311-ca. 382);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 1324-84); 안지로(Yajirō); 욘 토브 레비 아티아스(Yom Tob ben Levi Atias); 바톨로메우스 지겐발크(Bartholomäus Ziegenbalg, 1682-1719)

각 인물에 대한 글은 각각 다른 저자가 썼으며(물론 한 명의 저자가 여러 개의 글을 쓴 경우도 있다), 알파벳 순서로 서술되어 있다. 글의 길이도 저자와 인물에 따라 다양한데, 그 길이가 매우 짧은 경우에 주된 이유는 소개하는 인물이 고대/중세의 인물이어서 그 인물에 대한 정보나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통 인물의 이름 바로 다음에 괄호 안에 인물의 해당연도를 표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다. 또한 글의 형식에 있어서도 어떤 인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편안한 문체나 내용으로 쓰였고, 어떤 인물에 대해서는 잘 짜인 논문과 같이 학문적이다. 이러한 차이는 각 저자의 인물에 대한 이해도나 스타일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3.2. 언어들(Languages)

두 번째 장 ‘언어들(Languages)’에서도 노스는 성서 번역과 그 번역된 언어에 대한 역사를 6쪽 남짓에 걸쳐 이야기한다. 그것은 성서의 원어, 즉 성서 히브리어, 아람어, 코이네 그리스어로 시작하여, 2,000여 년의 시간 동안 현재까지 약 3,300개의 언어로 번역된 역사이다. 그리고 나서는 첫 번째 장처럼 각기 다른 저자들이 쓴 글이 등장하는데 이 또한 알파벳 순서이다. 3,000개 이상의 모든 언어를 다룰 수는 없어서 다음의 언어들만 이 책에 소개되어 있다.

아프리카노어; 아프리카-아시아어; 아카드어; 알바니아어; 캅카스 알바니아어; 알콘킨어; 암하라어; 아라비아어; 아람어; 아르메니아어; 아란다어; 인공어(Artificial Language); 아삼어; 아이마라어; 아제르바이잔어; 기본어(Basic Language); 바스크어; 벨라루스어; 벵골어; 보즈푸리어; 비슬라마어; 불롬어; 버마어; 각치켈어; 가나안 제어; 카탈로니아어; 세부아노어; 체로키어; 체와어; 차티스가르주; 중국어와 중국어 방언; 쿡 아일랜드어; 콥트어; 크리올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다코타어; 덴마크어; 방언; 두알라어; 네덜란드어; 에피크어; 이집트어; 엘람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피지어; 핀란드어; 대만어; 프랑스어; 프리지아어; 폴폴데어; 가어; 게일어; 바야어; 게이저어; 조지아어; 독일어; 키쿠유어; 고트어; 그리스어; 과라니어; 구자라트어; 그위친어; 하우스어; 하와이어; 히브리어; 힌디어; 히타이트어; 몽어; 헝가리어; 후르리어; 아이슬란드어; 이그브우어; 토착어들; 인도네시아어; 이뉴잇어; 이라쿼어; 아일랜드어; 이탈리아어; 자메이카 크리올어; 일본어; 자바어; 유대 언어들; 커바일어; 칸나다어; 카라임어; 카슈미르어; 카테어; 카자흐어; 콘칸어; 한국어; 언어 위기(Language Endangerment); 예술과 미디어 언어; 라틴어; 라트비아어; 링갈라어; 리수어; 리투아니아어; 루간다어; 루오어; 마두라어; 마다가스카르어; 말레이어; 말라얄람어; 몰타어; 맨어; 마오리어; 마라티어; 마야어; 미크맥어; 미스텍어; 모호크어; 몽골어; 모투어; 나와틀어; 네팔어; 노가이어; 노르웨이어; 고대 누비아어; 오리아어; 오로모어; 펜실베이니아 독일어; 페르시아어; 페니키아어; 페노파 저지 독일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케추아어; 로마니어; 루마니아어; 로만슈어; 러시아어; 사미어; 삼바어; 사모아어; 상고어; 산스크리트어; 세르비아어; 쇼나어; 수어로 된 성서 번역; 신드어; 신할라어; 슬라브어; 슬로베니아어; 소그드어; 소말리어; 소르비아어; 소토어; 스페인어; 순다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시리아어; 타갈로그어; 타이완어; 타지크어; 타밀어; 타타르어; 텔루구어; 태국어; 티베트어; 톱 피진어; 통가어; 방언; 츠와나어; 터키어(튀르키예어); 우가리트어; 우크라이나

어; 우라르투어; 우르두어; 우즈베크어; 베트남어; 웨일스어; 위루어; 우부어; 호사어; 요루바어; 유피크어; 사포텍어; 줄루어.

위의 항목에 대해서는 저자들이 주로 그 언어가 어디에서 쓰이는 언어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는지, 그리고 그것이 성서의 번역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고 있다. 앞의 ‘사람들’ 장과 마찬가지로 저자에 따라 어떤 글은 매우 짧고 어떤 것은 매우 길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가적 차원의 언어들도 많이 소개되어 있지만, ‘인공어(Artificial Language)’, ‘기본어(Basic Language)’와 같이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언어들, ‘피진어(Pidgin)/크레올어(Creole)’와 같이 서로 다른 언어들 가진 사람들이 의사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어들, ‘방언(Speaking in Tongues)’과 같이 쉽사리 정의하기 힘든 언어적 개념, ‘언어 위기(Language Endangerment)’와 같이 특정 언어는 아니지만 언어와 관련된 개념적인 용어도 등장한다. 또한 편집자 노스가 아프리카 언어의 전문가로서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했던 아프리카 언어에 대한 항목을 많이 소개/설명해 준 것도 눈길을 끈다.

3.3. 주제들(Topics)

세 번째 장 ‘주제들(Topics)’은 책에서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매우 다양한 분야의 여러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것들도 알파벳 순서로 서술되어 있는데, 그 주제의 다양한 스펙트럼은 처음 ‘추상성과 구체성(Abstractness and Concreteness)’, ‘용인성(Acceptability)’, ‘정확성(Accuracy)’ 등의 성서를 번역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추상적 개념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성서 세계의 필기 도구(Writing materials in the biblical world)’, ‘표기 체계(Writing system)’, ‘위클리프 성서번역회(Wycliffe Bible Translators [WBT])’ 등의 성서를 번역함에 있어서 실제적인 도구, 시스템, 그리고 단체로 끝을 맺음에서만 봐도 살짝 엿볼 수 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의 색인³⁾에서는 방대한 주제들을 살펴보기에 편리하게 다음과 같이 상위 주제들을 설정해 놓았다:

고대 세계와 성서 번역(Ancient world and Bible translation), 성서 번역의 접근(Approaches to Bible translation), 경전으로서의 성서(Bible as Scripture), 성서공회들(Bible societies), 성서 번역 자료들(Bible translation

3) Ibid., 965-971.

resources), 성서 번역가들(Bible translators), 경전의 정경(Canons of Scripture), 교회 권위와 성서 번역(Church authority and Bible translation), 소통과 성서 번역(Communication and Bible translation), 문맥(Context), 문화와 번역(Culture and translation), 윤리와 성서 번역(Ethics and Bible translation), 표현 언어(Expressive language), 페미니즘과 성서 번역(Feminism and Bible translation), 비유 언어(Figurative language), 기준틀(Frames of reference), 장르(Genre), 하나님의 이름(Names of God), 문법(Grammar), 성서 번역의 역사(History of Bible translation), 번역의 이데올로기(Ideology and translation), 정보 구조(Information structure), 성서의 해석(Interpretation of the Bible),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언어(Language), 언어 발달의 상황(Status of language development), 사회에서의 언어(Language in society), 언어 문제들(Language issues), 언어 조사와 분석(Language survey and analysis), 예술과 미디어의 언어들(Languages of Arts and Media), 언어학과 번역(Linguistics and translation), 문학(Literacy), 의미(Meaning), 번역의 측정과 평가(Measuring and assessing translation), 상위 표상과 번역(Metarepresentation and translation), 메타-텍스트(Meta-text), 음악과 번역(Music and translation), 구두와 성서 번역(Orality and Bible translation), 기관과 성서 번역(Organization and Bible translation), 화용론(Pragmatics), 번역가들이 고심할 문제들(Problems translators must address), 제작과 출판(Production and publishing), 관련성 이론과 성서 번역(Relevance theory and Bible translation), 개정과 통합본(Revisions and union versions), 수사학(Rhetoric), 경전(Sacred text), 경전 간행(Scripture publication), 경전 사용(Scripture use), 의미론(Semantics), 기호학(Semiotics), 이야기와 신화(Story and myth), 성서에서 추가자료(Supplementary materials in Bibles), 기술과 성서 번역(Technology and Bible translation), 본문과 성서 번역(Text and Bible translation), 신학과 성서 번역(Theology and Bible translation), 시간(Time), 번역(Translation), 번역과 관련된 규율들(Translation and related disciplines), 번역 센터들(Translation centers), 번역 컨설팅(Translation consulting), 번역 절차(Translation procedure), 번역 연구들과 성서 번역(Translation studies and Bible translation), 번역 기술들(Translation techniques), 번역 이론과 성서 번역(Translation theory and Bible translation), 특수한 번역들(Specific translations), 번역가의 도구들(Translator's tools), 고대 버전(Ancient versions), 언어들(Words), 표기 체계(Writing systems).

이 책의 많은 주제들 중에 한가지 필자가 관심 있는 주제인 페미니즘과 성서(Feminism and Bible translation)를 살펴보면, 본문에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성신들과 언어(Female deities and language, 435), 아프리카 신학의

여성신과 번역(Feminine deity in African theology and translation, 437), 페미니즘과 번역(Feminism and translation, 439), 성과 문법(Gender and grammar, 462), 포괄적 언어(Inclusive language, 510), 성서의 여성 번역가들(Women translators of the Bible, 881)로 안내되어 있다. 이 범주에 해당하는 글에서 중복되어 대두되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성(性)’을 어떻게 생각해서 번역에 적용해야 하는지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남성’으로 규정되어 번역되어 왔고, 이는 신학과 교회에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할 수 있는 부적절한 근거로 쓰여 왔기 때문이다.

성서 원어에서 하나님이 남성형 명사로 쓰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을 ‘엘로힘’, ‘주’를 ‘야웨(아도나이)’라고 쓰고, 헬라어로는 ‘하나님’을 ‘폐오스’, ‘주’를 ‘퀴리오스’라고 씌으로써 3인칭 남성 단수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 명사들이 실명사로 표현될 때보다 3인칭 남성 단수로서의 대명사로 쓰이게 되면 하나님의 성이 남성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하게 독자들의 눈에 띄게 된다. 현재 영어 번역이나 한국어 번역에는 하나님을 본문 그대로 보통 ‘he’ 그리고 ‘그’라고 번역하고 있다. 영어로는 한 때 하나님의 성을 표시하지 않기 위해 학계에서는 ‘한 분(One)’을 도입했지만, 사실상 제대로 실용화되지 않았다. 그리고 현재는 성(性) 포괄 언어(Gender inclusive language) 사용이 널리 퍼지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필요성이 성서 번역 쪽에서 제기된다 해도 그것이 적용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듯하다. 예를 들면 성 포괄 언어를 사용한다 해도 거기서 중립적인 명칭/호칭을 뜻하는 ‘그들/그들의/그들을(they/their/them)’을 쓰는 것은 또 다른 문법적/신학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나중에 그것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그 적용에 있어서는 매우 조심스러워야 할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성(性)’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남성’이라고는 더욱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당시 성서 기자들이 성서를 쓸 때에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은 분명 ‘남성’이었다는 것이다. 로널드 J. 심(R. J. Sim)이 언급했듯이, 번역가의 가장 중요한 업무들 중 하나는 그 ‘정확성(accuracy)’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⁴⁾ ‘정확성’이라는 단어 자체에도 많은 방향성이 내포되어 있지만, 수많은 측면 중에 ‘문법적 정확성’에 따른 번역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대명사를 ‘그’로 표현하는 것이 번역 자체로는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성서 번역과 보급이 성서적 배경지식의 수준이 다양한 독자들에게 읽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어떠한 독자들은 ‘그’라는 한 글자만

4) Ibid., 513.

으로도 전반적인 성서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이 하나님의 ‘성’을 ‘남성’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이기에 단 한 글자이지만 그 단어는 굉장한 힘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그’라고 하고 싶지 않으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동사에 포함된 하나님을 가리키는 3인칭 남성 단수 ‘그’를 실명사로 ‘하나님’이라고 하거나 ‘주’라고 번역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탄생한 하나님의 성별 규정에 대한 문제를 독자들이 이해하고, 또 무엇보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별이 설사 ‘남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성별이 남성인 사람이 성별이 여성인 사람의 우위에 있어 지배구조가 남성으로부터 여성으로 향한다는 비논리적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사회적 성숙과 동시에, 성서를 번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매개체가 되는 겸손한 마음으로 독자들이 ‘진리’에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는 번역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이 책에 들어 있는 표/그림/사진 자료

1,000쪽에 가까운 양에 비해 이 책에는 표나 그림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43개의 자료들이 간헐적으로 삽입되어 있는데, 책의 첫 부분 xi쪽에 ‘삽화(Illustrations)’라는 제목으로 책 전체 표/그림/사진 등의 정보가 나와 있다. 내용상의 큰 차이는 없지만 이것들은 본문 내의 자료에 표기된 것과 조금씩 다르게 기록된 경우가 많이 있다. 다음 목록은 본문에 표기된 내용을 쓴 것이다:

- 1) 무스 크리 음절문자 신약성서(Moose Cree New Testament in syllabic script, 27)
- 2) 이수정(Su-Jung Lee, 36)
- 3) 유진 A. 나이다(Eugene A. Nida, 43)
- 4) 케네스 L. 파이크(Kenneth L. Pike, 50)
- 5) 폴라드서의 카도(중국의 하니어) 누가복음(Luke in Kado [a Hani Language in China] in a Pollard script, 52)
- 6) 존 로스 목사(The Reverend John Ross, 54)
- 7) W. 카메론 타운센드(W. Cameron Townsend, 59)
- 8) 불롬-영어 마태복음 병용본 1816(Bullom-English Matthew diglot

1816, 92)

- 9) 중국어 방언: 하카 그룹(Chinese Dialects: Hakka Group, 101)
- 10) 중국어 방언: 만다린 그룹(Chinese Dialects: Mandarin Group, 101)
- 11) 중국어 방언: 민 그룹(Chinese Dialects: Min Group, 102)
- 12) 중국어 방언: 우 그룹(Chinese Dialects: Wu Group, 102)
- 13) 중국어 방언: 웨 그룹(Chinese Dialects: Yue Group, 102)
- 14) 시편 1:1-2 언셜체(Ps 1:1-2 in uncial script, 131)
- 15) 시편 1:1-2 교회체(Ps 1:1-2 in ecclesiastical script, 132)
- 16) 시편 1:1-2 조지아어 현대체(Ps 1:1-2 in modern [civil] script, 132)
- 17) 표 A: 히브리어 동사 어휘 패턴(Table A: Hebrew verb vocabulary patterns, 144)
- 18) 표 B: 히브리어 형태론적 범주(Table B: Hebrew morphological categories, 145)
- 19) 루일의 말레이어 마태복음 1629(Ruyl's Matthew in Malay 1629, 155)
- 20) 메이지 버전 “시편” 1887(Meiji Version of “The Psalms” of 1887, 167)
- 21) 메이지 버전 시편 23 1887(Psalm 23 of the Meiji Version 1887, 167)
- 22) 성경전서(The Korean Bible 1911, 176)
- 23) 수어 번역의 예시(Example of sign language translations, 232)
- 24) 렌 해리스의 우부이본 마가복음 Mark 1:1-3(Len Harris's first-draft manuscript of Wubuy Mark 1:1-3, 271)
- 25) 도표 1: 소통의 SMR 모델(Figure 1: The SMR model of communication, 355)
- 26) 도표 2: 번역의 SMR 모델(Figure 2: The SMR model of translation, 356)
- 27) 도표 3: 소통 오류(Figure 3: Miscommunication, 357)
- 28) 시에라리온 크리오 만화 소설(Sierra Leone Krio graphic novel, 363)
- 29) 문맥적 가능성들(Context possibilities, 393)
- 30) 성서의 절기들(Festivals in the Bible, 442)
- 31) 성서의 지도: 표 A(Maps in the Bible: Table A, 572)
- 32) 성서의 지도: 표 B(Maps in the Bible: Table B, 573)
- 33) 성서의 지도: 표 C(Maps in the Bible: Table C, 574)
- 34) 성서의 지도: 표 D(Maps in the Bible: Table D, 574)
- 35) 슈라키의 쓰고 말하여지는 이름의 그래픽 조합(Chouraqui's graphic combination of the written and spoken Name, 620)

- 36) 1차, 2차, 그리고 3차 번역(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translation, 653)
- 37) 도표 1. 소쉬르의 기표/기의(Figure 1. Saussure's signified/signifier, 760)
- 38) 도표 2. 퍼스의 삼원론(Figure 2. Peirce's triad, 760)
- 39) 도표 3. 피어스의 범주와 등급(Figure 3. Peirce's categories and classes, 761)
- 40) 히브리어 팔레오-쿰란 형태(Hebrew Paleo-Qumran shapes, 801)
- 41) 성서의 시대(Biblical time periods, 811)
- 42) 도표 1: 전달 과정(Figure 1: The transfer process, 832)
- 43) 도표 2: 번역가의 책상에서(Figure 2: At the translator's desk, 833)
- 44) 체스터맨의 유형론(Chesterman's typology, 871)

5. 이 책에서 도움이 되는 점

우리는 사실 성서의 내용 그 자체보다는 ‘성서 번역’에 있어서의 사람들, 언어들, 그리고 주제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주목하지 않아 왔던 것 같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성서 번역가들과 그에 관련된 언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곳곳에 전파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매개체들임에 틀림이 없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그 역사를 되짚으며 관련 인물들과 언어들, 그리고 주제들을 살펴볼 수 있음에 이 책은 분명 큰 도움이 된다.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을 조금 짚어보면, 첫 번째 장 ‘사람들’에서 필자는 잘 알려진 사람들보다도 개인적으로 정보가 별로 없는 인물들에 대한 글이 마음에 남았다. 그런 경우는 역사적으로 오래된 인물이어서 관련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 매우 짧고 출처도 없으며 관련된 연도도 없이 소개되는 경우가 몇몇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필자는 그 이름들이, 비록 실명조차 남아 있지 않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성서 번역의 역사 속에 남아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록이 세세하게 남아 있지 않아도 그 역사적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생각 하나, 말 한마디가 성서 번역의 방향을 조금씩 바꿨을 수도 있다. 성서 번역에 연관된 희미해져 갈 수 있는 인물들이 다시 한번 기록되어 독자들의 기억 한편에 남아 있을 수 있게 되었다.

‘언어들’에서는 성서가 기록되고 번역된 언어들이 다양하게 소개되어 이

에 대한 배움이 있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국가들의 언어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토착민들의 언어, 아프리카의 언어 등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언어들을 접할 수 있던 것이 특별했다. 또한 ‘수어 (Sign language, 231-234)’와 같은, 음성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고안된 언어를 성서 번역과 관련하여 소개해 준 것도 인상 깊었다. 복음이 전파됨에 있어서 그 어떤 어려움도 소통의 노력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

‘주제들’에서는 방대한 스펙트럼의 주제들을 다루어 독자들의 다양한 학구적 호기심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준다. 성서 번역과 관련된 개념, 문법, 기술, 시스템, 세계 각국의 성서공회 등에 대한 정보들뿐 아니라, 사상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빠르게 변화해 가는 현대사회에서 성서 보급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메커니즘에 대한 고민들도 담겨 있다.

6. 이 책에서 주목할 만한 대한민국 자료

이 책에는 사람들, 언어들, 주제들에 각각 한국에 대한 글도 몇몇 등장하는데, 저자들의 목록에 대한성서공회의 반가운 이름들이 보인다. 호재민 총무와 조지훈 국장이 참여한 성서 번역과 보급에 있어서 한국의 인물들과 언어, 그리고 주제들을 짧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람들’ 장에서는 한국의 성서 번역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인물들로 ‘존 로스(J. Ross, 1842-1915)’⁵⁾와 ‘이수정(Su-Jung Lee, 1842-86)’⁶⁾이 소개되고 있다. 존 로스 목사는 스코틀랜드 개신교 선교사로 중국에서 활동했으며, 11가지 언어에 능통한 그는 중국 우장의 ‘고려문’에서 한국인들을 만나 1876년부터 한국어로 성서를 번역하기 시작했다. 1882년 순한글로 기록된 최초 낱권 성서인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1882)가 출판되었으며, 나머지 복음서들도 순차적으로 출간된 후, 1887년에는 우리말 최초 신약성서 『예수성교전서』(1887)가 간행된다. 로스역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본문의 의미와 한국어의 관용어에 적합한 절대적 직역이며, 원천 본문으로는 영어 번역본이 아니라 그리스어 본문을 사용한다”⁷⁾는 것이었다. 또한 ‘하느님’이라는 신명(神名)을 ‘하나님’으로 바꾸어 선택한 것도 로스역의 커다

5) Ibid., 54.

6) Ibid., 36.

7) J. Ross, “J. Ross’ letter to W. Wright(Jan 24, 1883)”, 옥성득, 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4), 62-65.

란 공헌이며, 순우리말로 기록되어 평민들과 여성들도 읽을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전파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⁸⁾ 대한성서공회는 한국 교회를 대신하여 로스 목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95년 한국에 현충관을 건립하였으며, 또한 그의 모국인 스코틀랜드에도 그의 묘비에 성서 번역 업적에 대한 감사와 헌사의 글이 적혀 있다. 이수정은 조선시대 후기 인물로 1882년 수신사 박영효의 수행원으로 일본으로 넘어가 한국 신약성서를 접하고 이를 복음으로 받아들여 세례를 받은 일본의 최초 한국인 개신교 신자였다. 그는 한국의 가장 초기 성서 번역자 중 한 명으로 미국성서공회의 일본 총무 헨리 루미스(H. Loomis)의 권유로 성서 번역을 시작하였는데, 이는 한문 본문에 한글 읽기식 토를 단 형식의 번역이었다. 이수정은 이후 국한문병용체로 마가복음을 번역하였으며(『신약마가전복음서언히』, 1885), 이는 후에 국내의 성서번역자회에서 개정되었다.⁹⁾

또한 ‘언어들’ 장에서는 ‘한국어(Korean)’¹⁰⁾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역대 한국어 성서 번역본이 순서대로 다루어졌다: 한국어 성서 번역의 역사를 시작한 로스역의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1882), 『예수성교전서』(1887), 이수정역의 『신약마가전복음서언히』(1885), 위원회(Permanent Executive Bible Committee)를 꾸려서 번역된 최초의 전체 성서인 『성경전서』(1911), 기존의 ‘공인 번역자회’를 ‘공인 개역자회(Board of Official Reviser)’로 바꾼 뒤 개정된 『성경개역』(1938), 그리고 『성경개역』을 당시 한국어 맞춤법에 의거해 개정한 『성경전서 개역한글판』(1952/1961), 『개역한글판』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대와 언어의 변화를 감안하여 꼭 고쳐야 할 부분만 개정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1998), 중등교육 이상 교육을 받은 비기독교인을 염두에 두고 문장부호를 덧붙인 『신약전서 새번역』(1967), 가톨릭과 공동으로 번역한 『공동번역 성서』(1977),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주로 사용하던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을 대체할 만한 번역에 대한 요구로 간행된 『성경전서 표준새번역』(1993)과 『성경전서 새번역』(2001)이다.

‘주제들’ 장에서는 ‘제작(Production)’¹¹⁾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세계 곳곳의 성서공회들이 성서 인쇄와 보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중에

8) 대한성서공회, 『대한성서공회 창립 120주년 기념 한글 성서 전시회』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5), 46-48.

9) Ibid., 48-49.

10) P. A. Noss and C. S. Houser, eds., *A Guide to Bible Translation: People, Languages, and Topics* (Swindon: United Bible Societies, 2019), 175-179.

11) Ibid., 662-665.

서도 대한성서공회가 브라질성서공회(Bible Society of Brazil), 콜롬비아성서공회(Colombian Bible Society), 인도네시아성서공회(Indonesian Bible Society) 등과 함께 성서공회들 중에서도 중요한 센터로 자리잡고 있음을 명시하였다. 또 성서의 편찬 과정을 ‘전-인쇄’, ‘인쇄’, ‘묶음’의 단계로 나누어 기술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웹사이트, 전자책, 그리고 휴대용 기기에서의 성서 보급에 대해 전망했다. 또한 ‘대한성서공회(Korean Bible Society)’¹²⁾도 소개되었는데, 여기에서는 한국어 성서 번역의 역사적 상황들과 더불어 대한성서공회가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에 성서를 기증하는 등 선교적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뿐 아니라 세계 성서 보급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7. 이 책의 아쉬운 점

책의 제목에서 말하는 정체성대로, 이 책은 성서 번역의 ‘가이드(Guide)’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충족시켜 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이드’ 방식에 있어서 이 책은 어느 정도 정보나 지식의 전달을 목표로 하는 백과사전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아쉬웠던 점을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다.

‘사람들’ 장에서는 각 항목을 역사적 순서로 파악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다. 성서 번역의 역사에서 그 인물들이 어느 지점을 차지하는지를 볼 수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되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인물들의 해당연도가 애매해서 정확한 순서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고대/중세/근대/현대의 간단한 시대별 구분을 하거나, 아니면 시대별 인물 색인이 제공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또한 기술적으로 사소한 것으로는, 여러 저자들에 의해 쓰여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 항목의 제목이라도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인물의 이름 뒤에 주로 그 해당연도를 적어놓았는데, 어떤 사람은 ‘기원후’를 뜻하는 ‘CE’를 해당연도 뒤에 붙이고, 어떤 사람은 붙이지 않아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보인다.

‘언어들’의 경우에도 ‘사람들’에서와 같이 2,000여 년의 성서 번역의 역사가 매우 길기 때문에, 적어도 시대적 카테고리나 나눠서 기술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특히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와 같은 성서 원어는 따로 다루어 조금 더 깊게 설명했어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또한

12) Ibid., 543-544.

히브리어 같은 경우엔 언어의 역사와 함께 문법적, 기술적인 설명이 덧붙었는데, 그리스어는 신약의 중요한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한 쪽 남짓한 설명에 문법적인 측면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아서 아쉬웠다.

‘주제들’에 대해서는 영문 제목 ‘Topics’란 단어 자체가 그 방대한 모든 것을 포함하려는 목적이라면 매우 성공적인 단어 선택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추상적인 개념/관념부터 시작해서 아주 구체적인 문법, 방법론, 그리고 실무를 하는 세계 각국의 성서공회까지의 어마어마한 스펙트럼을 골고루 다루기 위해서는 이 책의 공간이 조금 더 넉넉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래도 책의 마지막 색인에 이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색인이 있어서 독자들이 길을 잃지 않고 관련 주제 카테고리를 찾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책의 전반적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2019년 출판된 책치고는 표/그림의 해상도가 실망스러운 점이 있다. 시간이 오래 지난 사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면 144-145쪽에 등장하는 히브리어 문법에 해당하는 표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출판 기술로도 해상도를 이 정도로 떨어뜨리지 않고도 분명히 더 나은 결과물이 가능한 것이었다고 본다. 또한 xi쪽에 나와있는 일러스트 순서와 본문의 일러스트 순서가 다른 부분이 있었다: xi쪽 표에는 만다린, 우, 민, 웨, 하카 그룹의 순서로 소개되는데, 본문 101-102쪽에는 하카, 만다린, 민, 우, 웨 그룹의 순서로 나온다. 독자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순서가 일치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각 저자의 정보가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저자의 학문적, 신앙적, 그리고 무엇보다 성서 번역 연구에 있어서의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써줬으면 그 상황의 맥락에서 글을 이해하기가 더 쉬웠을 것 같다. 책의 서두에 ‘기여자들(Contributors)’이라고 이름과 소속이 나열되어 있지만, 조금 더 깊은 정보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또한 한 명의 저자가 한 개 이상의 글을 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자에 대한 색인이 있었다면 독자들이 한 저자가 쓴 여러 가지 항목들을 찾기 쉬웠을 것 같다.

8. 나가는 말

이 책은 성서가 쓰인 이후 현대까지 성서의 번역자와 그 번역과 보급에 기여한 사람들, 성서가 번역된 각국의 언어들, 그리고 성서 번역과 관련된 방대한 주제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다. 평소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정보가 없었던 이름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된 수많은 언어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며, 성서 번역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하고 또 예상치 못했던 주제들까지 접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되는 책이다.

무엇보다 각국의 저명한 학자/실무자들이 힘을 모아 엮은 책이라는 점에서 의미도 크다. 몇천 년 동안 귀중하게 이어온 번역의 역사를 각국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기술하여 엮은, 분명히 기여도가 높은 책이다. 무엇보다 한국의 인물들, 언어들, 그리고 주제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자랑스러웠다. 2019년에 편찬된 이 책에서 마지막 버전의 한국어 성경은 『성경전서 새번역』(2001)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젊은 세대들도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2021)(현재 구약까지 포함한 완역본을 준비 중)과 대한성서공회가 2021년에 개정을 공표한,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개정판도 훗날 이 책의 다음 버전에 덧붙여 기록되기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Keywords)

성서, 번역, 인물, 언어, 주제.

Bible, translation, people, languages, topics.

(투고 일자: 2024년 1월 31일, 심사 일자: 2024년 2월 22일, 게재 확정 일자: 2024년 4월 15일)

<참고문헌>(References)

- 대한성서공회, 『대한성서공회 창립 120주년 기념 한글 성서 전시회』,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5.
- Ekem, J. D. K., *Early Scriptures of the Gold Coast (Ghana): The Historical, Linguistic, and Theological Settings of Gã, Twi, Mfantse, and Ewe Bibles*, Rome: Edizioni di Storia e Letteratura; United Kingdom: St. Jerome Publishing, 2011.
- Noss, P. A. ed., *A History of Bible Translation*, Rome: Edizioni de storia e letteratura;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2011.
- Ross, J., “J. Ross’ letter to W. Wright(Jan 24, 1883)”, 옥성득, 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제1권』,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4.
- Thomas, K. J., with a contribution by Ali-Asghar Aghbar, *A Restless Search: A History of Persian Translations of the Bible*, Philadelphia: Nida Institute for Biblical Scholarship, American Bible Society, 2015.

<Abstract>

**Book Review - *A Guide to Bible Translation:
People, Languages, and Topics*
(Swindon: United Bible Societies, 2019)**

Sehee Kim
(Ewha Womans University)

This book, *A Guide of Bible Translation: People, Languages, and Topics*, is the latest volume in the book series of *History of Bible Translation*, published by United Bible Society (UBS). The volume is nearly 1,000 pages long and includes massive and veritable information about the people, languages, and topics in relation to Bible translation. Philip A. Noss and Houser are co-editors of this book, who served as a Bible translation consultant in UBS and an editorial manager in American Bible Society (ABS), respectively.

In the first section, the selected key figures in the history of Bible translation and distribution are introduced. The introduced people are key figures in the history of Bible translation and distribution to the communities. The second section consists of a huge number of languages including the original biblical languages, ancient and modern languages, related to the Bible/Bible translation. The last section deals with veritable topics in Bible translation, including conceptions, grammars, theories, and practical field.

Overall, it is a helpful guide for readers who seek not only the general information but also hidden gem when studying the history of Bible translation; the volume spotlights the less well-known people, languages of far countries, and interesting topics in Bible Translation. Thanks to a large number of contributors from all over the world, the readers obtain the opportunity to learn valuable wisdom and in-depth knowledge, along with the joy of reading the Bible itself.